

광주시교육청, 2023년 학부모 광주교육정책 설명회 성료

3년 만의 대면, 학부모와 소통과 공유의 장 마련 광주교육에 관심 있는 600여 명의 학부모 참여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1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관내 학부모 대상 광주교육정책 및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각급 학교 학부모회 임원뿐 아니라 광주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사전 접수가 마감된 후에도 많은 학부모가 참석을 희망할 정도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설명회 당일에는 600여 명의 학

부모가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변화하는 시교육청의 10대 광주교육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안내하면서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졸업앨범비, 체험학습비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 이어 학부모회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해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또 사전 공연으로, 문화배낭 공약사업의 일환인 전통국악, 댄스, 전자바이올린 등 크

로스오버 음악 공연이 펼쳐졌다. 이에 광주교육공동체가 함께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됐다. 이와 함께 '우리 아이 마음건강 관리 특강'을 통해 자녀교육에 유의하고 의미 있는 학부모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설명회는 다양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3주체의 중심에 있는 학부모와 교육청이 연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과 학부모의 직접적 소통을 위한 마중물이 돼 3년 만의 학부모와 대면 설명회에 대한 호평이 가득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에 애정을 갖고 설명회에 적극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



다"며 "앞으로 학부모들과 함께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과 미래를 여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자치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양중동초, '상상놀이 워크숍' 참여



광양중동초등학교는 11일 교내 체육관(중동관)에서 4학년 66명의 학생들이 어린이 자문단으로 초청되어 '상상놀이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상상놀이 워크숍은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룡산 상상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학생

들의 꿈과 상상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워크숍에 참여하여 광양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상상놀이터 디자인을 제안하고,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놀이터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였다. 상상놀이 워크숍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차는 5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워크숍 과정에서 발현된 학생들의 디자인은 최종 투표를 거쳐 상상놀이터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광양=김현근기자



함평영화학교, 환경정화활동 실시

함평영화학교는 지난 11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9시에 학교스쿨버스에 하나둘씩 오르고, 휠체어도 스쿨버스에 탑승하여 전학년 모두가 함평엑스포공원으로 출발하였다. 학생들의 손에는 쓰레기봉투, 집게, 장갑등이 들려있었다.

엑스포공원에 도착하여 멋지게 단체사진을 찍고 자유롭게 공원을 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채워나갔다. 바람이 학생들의 옷깃을 살랑거

리고, 웃음소리를 전달해주는 봄날에 허리를 숙인 학생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나누고,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계획하였다고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다. 함평=김광춘기자

나주교육청, 2023 나주 역사·문화·자연환경체험학습 실시



나주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역사·문화·자연환경을 탐방하는 2023. 나주 역사·문화체험학습 '비단고을 역사탐험대'를 총 150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총 150회 운영

'비단고을 역사탐험대'는 2021년부터 운영된 나주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2021년 1,096명, 2022년 1,972명이 참여하여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나주교육지원청은 올해 2월에 중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부모해설사 연수를 실시하고 중학생용 활동책을 별도로 개발하여 2023년에는 초등학교 6개 프로그램, 중학교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19교(2,776명), 중학교 9교(586명)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중학교 「비단고을 역사탐험대」는 1일 체험프로그램으로 오전에는 학부모해설사와 함께 역사 발자취를 찾아보고, 오후에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연계하여 공예체험과 진로교육으로 운영된다.

나주교육지원청 박윤자 교육장은 "학생들이 살아있는 역사·문화를 수업의 교재로 삼아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배우고, 내 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 녹동초, 학부모·학생과 함께 떠나는 독서 여행

매주 화요일 아침시간 활용 '리딩맘' 운영

고흥녹동초등학교의 매주 화요일 아침시간의 교실 모습은 특별하다.

리딩맘(Reading-Mom)이 책을 길잡이 내게 읽어주는 목소리와 귀를 종긋하며 듣는 학생들의 호기심이 교실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리딩맘(Reading-Mom)은 녹동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독서 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매주 화요일 아침시간을 통해 진행된다.

3학년 학생 이○○은 "리딩맘 선생님이 실감나게 들려주시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물

랐던 내용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서○○은 "여러 리딩맘들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책을 안내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향희 교장은 "아침마다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학부모회에 감사하며, 학생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